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19 믿음으로 제사 드린 아벨

창 4:1~8, 히 11:1~4
찬송 182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오늘 배울 말씀

1. 사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2. 아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 ]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 ] [ ] 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 4:1~5)

말씀을 이해하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차이는 제물에 있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인은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없고, 사망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벨은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대속이고 피입니다. 아벨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바른 제물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다른 제사를 드린 원인은 결국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담에게서 들음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도 동일한 내용을 들었겠지만 믿음 대신 자신의 행위에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 11:4)

By faith Abel offered 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through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God testifying of his gifts; and through it he being dead still speaks. (He 11:4)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2. '의로운 자'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었으며, 인간적으로 볼 때 어느 것이 더 정성을 드린것으로 보일까요(창 4:3~4)?

2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창 4:4, 히 11:4)?

3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롬 10:2~3)?

4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지 교제해 봅시다(엡 1:7, 13).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욥 35:7	
월	합 2:4	
화	막 10:52	

수

롬 10:2

목

롬 10:3

금

엡 2:8

토

히 11:4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학교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내용을 가지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되물었습니다.

"학생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을 원했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한참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원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 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질문 있어요~

동물들은 노아의 방주에 암수 한 쌍씩 탔습니까?
아니면 암수 일곱 쌍씩 탔습니까?

창세기 6장 19~20절에는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실으라고 하셨는데, 7장 2절에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 방주에 실으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은 암수 둘씩 방주에 싣되, 특별히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실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홍수가 끝나고 노아 일행이 배에서 내려서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창 8:20)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 정결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삼기 위해 일곱씩 실으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암수 한 쌍씩만 실었다면 제물로 바쳐져서 종족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